

김하성, 샌디에이고와 계약... 역대 9번째 한국인 MLB 타자



▲ 샌디에이고에 등지를 틀며 역대 아홉 번째 한국인 메이저리거 타자가 되는 김하성. 사진=타운뉴스DB

한국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내야수 김하성(25)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김하성이 샌디에이고와 입단 계약에 합의했다. 피지컬테스트가 진행 중이라 아직 구단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하성이 최종 관문을 통과하면 2002년 박리그 데뷔한 최희섭 이후 역대 아홉 번째 한국인 메이저리거 타자가 된다.

김하성과 샌디에이고 사이의 정확한 계약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4년 계약에 옵션 등을 포함해 보장금액이 총 2,500만 달러 안팎의 규모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빅리그를 노크한 김하성이 계약을 완료하면 원소속 구단인 키움도 포스팅 비용을 챙긴다. 2018년 한국야구위원회(KBO)와 MLB의 '한미 선수계약협정' 개정안에 따라 계약 총액이 2,500만 달러 이하일 때는 그중 20%를, 2,500만~5,000만 달러일 때는 2,500만 달러의 20%인 500만 달러에 2,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17.5%를 키움에 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MLB 구단들의 수익이 줄면서 현직 자유계약선수(FA)이 적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한국 일본 타자들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계약 예상 규모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다. 김하성의 계약에는 마이너리그 거부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키움에서 유격수와 3루수를 번갈아가며 뛴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에선 2루수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팀의 간판스타

인 매니 마차도(28)가 3루수, 팀의 미래로 평가받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21)가 유격수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이다. 올 시즌 2루수를 맡았던 제이크 크로넨워스(26)는 외야로 갈 가능성이 높다. MLB닷컴도 이날 "샌디에이고에는 타티스 주니어와 마차도가 있어서 김하성의 계약에 몇 가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아마도 구단은 김하성이 2루수 잘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크로넨워스를 외야로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시즌 30홈런을 기록한 김하성이 빅리그에서도 장타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4년 프로에 데뷔한 김하성은 7시즌 동안 타율 0.294, 133홈런, 575타점, 134도루를 기록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오랜 시간 우승권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2020시즌 14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으며 2021 월드시리즈 우승을 꿈꾸고 있다.

골프채널 "고진영·김세영, 새해 기대되는 '최고의 경쟁자'"

세계 여자골프 랭킹 1인 고진영(25)과 2위인 김세영(27)이 2021년 기대되는 최고의 경쟁자로 꼽혔다.

지난 29일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미국 골프채널은 이날 2020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돌아보는 기사를 게재하면 고진영과 김세영을 2021년 최고의 경쟁이 기대되는 선수들로 선정했다.

골프채널은 "세계 랭킹 1·2위인 고진영, 김세영은 LPGA 투어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정면 승부를 펼쳤고 고진영이 대회 우승을, 김세영은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어 "벨리 코르다(미국의 잠재력과 박인비의 꾸준한 우수함도 주목할 부분"이라며 박인비에 관해서도 주목했다.

고진영과 김세영은 2020년 LPGA 투어 최고의 경쟁자였다. 김세영이 메이저 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거두며 세계 랭킹에서 고진영을 바짝 추격했고,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선 사흘 동안 선두권에 서 계속해 우승 경쟁을 펼친 바 있다.

고진영은 이날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 랭킹에서 1위를 지켰다. 이로써 고진영은 2020년 내내 세계랭킹 1위 자리를 고수했다. 2019년까지 포함하면 그해 7월부터 17개월째 세계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고진영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LPGA 투어에서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4개 대회에만 출전했다. 복귀전인 펠리컨 챔피언십에서는 공동 34위에 그쳤지만, 불린 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클래식 5위,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공동 2위, 시즌 최종전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

서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2020년 세계랭킹 5위로 출발한 김세영은 2위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김세영은 메이저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과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연달아 우승하고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를 차지하는 등 2020년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박인비가 3위, 김효주가 9위, 박성현이 10위로 모두 5명의 한국 선수가 톱10 안에 이름을 올렸다.

박인비는 세계랭킹 15위로 2020년을 출발해 한때 17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세계랭킹 3위로 한 해를 마감했다. 박인비는 지난해 2월 ISPS 한다 호주 오픈에서 우승하고 3차례 준우승을 거두며 부활을 알렸다.



▲ 지난 2019년 LPGA 투어 휴젠티어 프리미어 LA 오픈 프로암에 참가했던 고진영(오른쪽)과 김세영. 사진=타운뉴스DB

광고 그래픽 디자이너 모집

- 모집 인원 풀타임 디자이너 1명
- 제출 서류 이력서, 포트폴리오 각 1부
- 서류 제출 방법 info@townnewsusa.com 이메일 제출
- 기타 서류 심사 후 인터뷰 일정은 개인별 통보함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404-0027 (Rosecrans Ave + Valley View Ave)